팜스테이마을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전북농협 · 전북팜스테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결산 보고 공유 · 임원진 선출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전북팜스테이협의회는 지난 20일 전북본부 6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광식 순창군 구림면 고추장익는마을 위원장이 신임 전북팜스테이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총회에는 전북 지역 21개 팜스테이마을 위원장과 사무장, 전북본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결산 보고를 공유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또한 팜스테이마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팜스테이(FarmStay)는 농협중앙회가 지원·육성하는 농촌 체험형 브랜드다. 농가나 체험마을에서 숙박과 식사를 하며 농촌 생활과 문화체험, 지역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 32개 마을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전북팜스테이협의회는 지난 20일 전북본부 6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광식 신임 회장은 "농촌사회 고령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팜스테이마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마을 대표들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대표 농촌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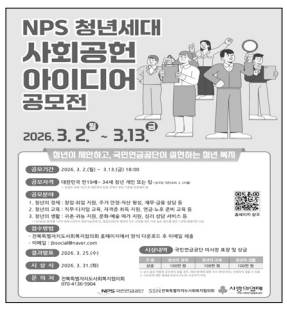
김성훈 본부장은 "팜스테이마을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관광, 체험교육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팜스테이마을 육성에 힘쓰고 농촌소멸에 대응해, 쉼과 즐거움이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전북팜스테이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청년이 제안하고 공단이 실현한다

국민연금공단, 청년 세대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한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NPS 청년 세대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다.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세대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청년의 경제 △청년의 교육 △청년의 생활 등 총 세 가지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분야별 우수작을 1건씩 선정해 이사장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공단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청년을 위한 사회공헌에 청년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이 제안하고 공단이 실현하는 구조를 통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 간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대기업 · 공공기관과 개방형 혁신 참여할 스타트업 모집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전략과제 해결형)' 3월 19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월 20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제안한 협업 수요과제 131개 가운데 30개를 선별하고, 해당 과제를 함께 해결할 스타트업을 최종 30개 내외로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는 '벤처 클라이언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참여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신청 기업은 지난해 68개사에서 올해 90개사로 32.4% 증가했고, 접수 과제도 94개에서 126개로 39.4% 늘었다.

앞서 수요과제 접수와 평가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해당 과제를 수행할 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최대 1억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전문교육이 제공되며, 수요기업은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우수 협업 기업에는 창업성장·구매연계형 R&D와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등 후속 지원도 연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Startup 누리집에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전략과제 해결형' 외에도 '민간 선별·추천형' 프로그램 30개를 선정했다. 현대자동차(제로원), 삼성전자(C-Lab Outside) 등 대기업이 참여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연계 지원한다. 또한 오픈이노베이션 중개 플랫폼을 통한 '상호 자율탐색형' 프로그램도 3월 이후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신보 전북지역보증센터, 4700억원 신규보증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사진))는 올해 농림수산업자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4,7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전북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주·완주·익산·김제·군산·무주·진안 등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농협은행을 비롯해 지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598억 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했으며, 전년도 보증잔액은 약 9,917억 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지역 농림수산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올해는 정책자금 연계 보증을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자금 지원과 경영 여건이 어려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와 농업재해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농림수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증을 운영해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해빙기 대비 사업현장 점검

전북개발공사가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침하와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해빙기 대비 사업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20일까지 공사가 관리 중인 시설물과 추진 중인 사업현장 등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시설과 관리 중인 임대주택, 건설·개발사업 현장 등 해빙기 취약요소가 우려되는 전 사업장이 점검 범위에 포함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사장 및 시설물 주변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의 안정성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민원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근 사장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공정의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며 "선제적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를 통해 전북도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관원 전북지원,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교육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오는 3월 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항공방제업자와 방제기술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항공방제업자는 최근 3년 이내에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신규로 항공방제업을 신고할 경우에도 해당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농약관리법 등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농약의 이해와 안전사용 요령, 항공방제 기체 운용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관내 항공방제업 신고업체와 3년 교육 이수 기한이 도래한 대상자에게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우편과 문자 등으로 사전 안내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교육을 이수한 뒤 추가 교육을 받지 않은 방제기술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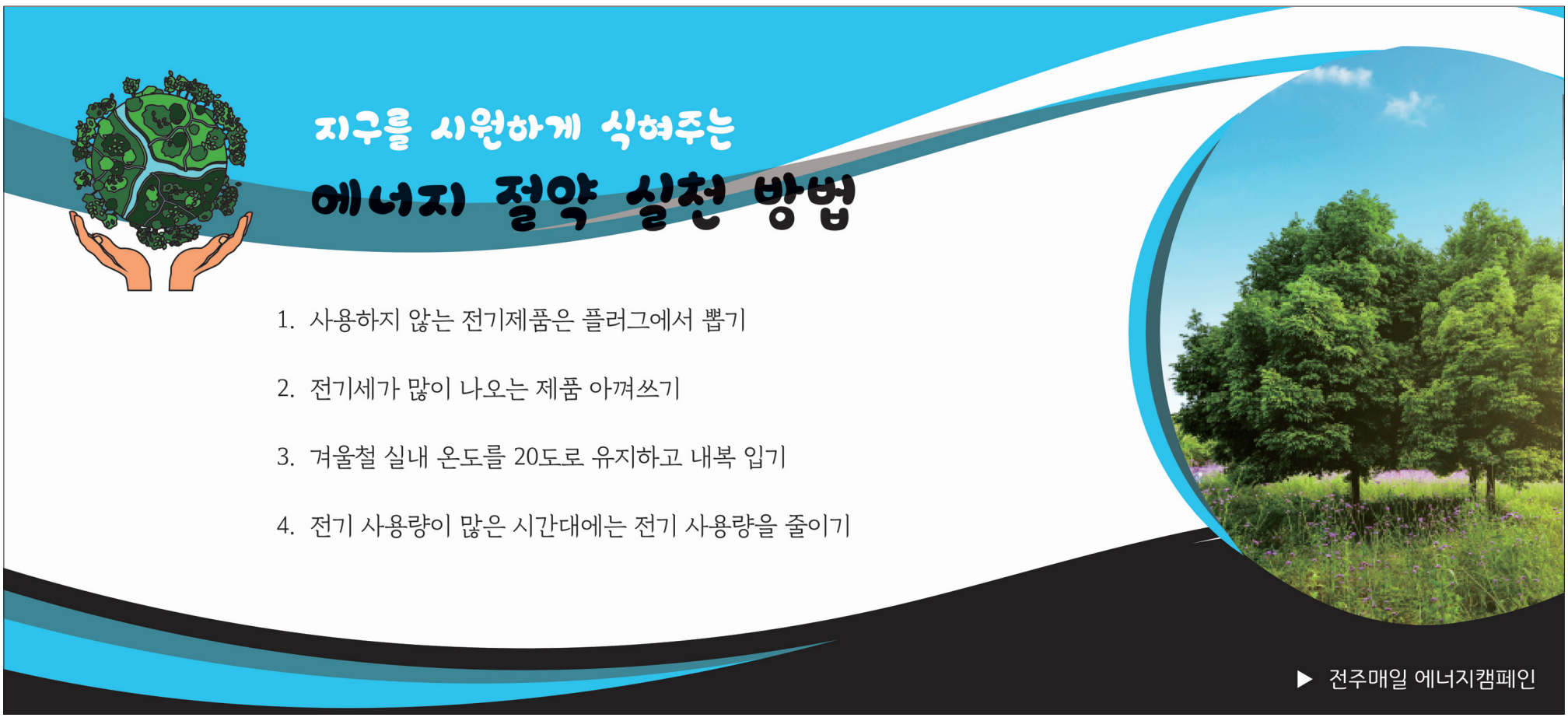
교육 신청은 농관원 전자민원시스템(agrin.go.kr)에 회원가입 후 세잎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관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북지원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사전 접수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소상공인 지원 위해 2억5000만원 출연

전북은행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성장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5천만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총 83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대출'은 23일부터 상담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8년으로,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오상근 기자